

2020 년 9 월 13 일 “아브라함 이야기(2) 아들편에 서신 주님”(창 12:10-20)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목적은 창조의 회복의 측면에서 우리를 주님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통해 참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질문: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가족은 고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대학이나 직장을 통해서 offer를 받으면 낯선 계인스빌로 두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를 향해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줄까?

아브람의 부르심의 과정 속에도 이런 내적 고민, 갈등,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직은 축복이 열리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면 열리게 된다는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 감으로써 생명의 힘을 얻게 됩니다.

[2] 이집트 피신 속에서 배운 영적 교훈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항상 집중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자연적으로 방어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족의 안전과 생존 욕구에 지배당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감격의 예배를 드린 아브람도 갑자기 닥친 기근 때문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데리고 풍요의 땅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가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왕들은 예쁜 여자를 취해가는 풍속이 있었는데, 사례를 누이라고 하면 자기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계산 때문에 아내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부부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것은 12:2,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사례가 아니어도 믿음의 후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치명적 잘못을 저질렀지만 성경에는 이 잘못을 질책하는 곳이 없습니다. 상상 외로 혼이 난 것은 재앙을 당한 바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곧 사례를 돌려주었습니다.

바로는 당시 온 세계의 최고 권세자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그 위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례를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자요, 능력자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바로는 아브람의 가족에게 재산과 짐승을 주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삶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브람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를 찾아가는 것도 그이고, 사례가 누이라고 속인 것도 그인데, 오히려 바로가 당했고 자기는 풍부한 재물과 짐승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기막힌 반전입니까? (13:1-2 참고)

잘못에 대해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것만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은총 입은 자인지를 알면 사람은 확실하게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람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믿어 주시는 것은 그의 행한 짓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맞이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선한 생명의 힘을 주시는 길입니다. 믿음, 용기, 희생, 사랑을 행하도록 돕는 힘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그분 뜻대로 살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걷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큰 약속을 받았지만(창 12:1-3),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실 능력이 있을까 라는 반신반의를 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세상의 최고 권세자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는 상상을 뛰어 넘는 약속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13-14 장을 보면 아브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채워져야 할 것을 간구하고, 그나마도 못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며 종종 불평과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믿으시는 주님의 신뢰가 내 인생의 어떤 부족함도 결국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된 경험이 아브람에게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람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2. 아브람이 첫 예배를 드린 후에 나온 이집트 피난 기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아브람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 무엇을 배웠을까요?